

사회적경제 실행연구자 되어가기: 질적연구방법론 수강 대학원생의 학습경험 내러티브*

고경아**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 석사과정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경험한 수강생들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에 기반하였다. 연구결과,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으로 사물과 현상을 접근하는 시선의 변화가 생겼고, 수강생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 요인으로는 교수가 수업시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른 관점에 대해 질문하며 변화 동기를 촉진 시키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확대하고, 연구자의 관심사와는 다른 수강생들의 글을 주제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연구의 효과와 필요성을 현장감 있게 인지하게 되었고, 자기 생각을 갖고 발표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참고도서를 읽는 것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은 현장의 다양한 현상을 의미 있게 접근할 수 방법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의 태도에서 교수와 학생간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인터넷 이용으로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 상호간 의사소통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자신이 연구하려는 대상을 정의하고 연구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방법이 달라지면 연구목적과 초점도 달라져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이 논문은 연구자 자신이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실행연구자가 되어감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질적연구방법, 내러티브, 학습, 변화

*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 준 심사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 경기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 협치지원관, jeus5090@gmail.com

Becoming an Action Researcher of Social Economy: Narratives of postgraduate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i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ourse

Go, Gyong A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of the author who has experienced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ourse of Master's program. The study is based on narrative inquiry research method. Research findings are the author and other students have been changed in ways in which they are approaching objects and phenomena of social economy. Also the positive interplay between members of the course helps the author have a receptive attitude which could accept people who have different views. For the author's learning experiences, the professor always has asked to think of different viewpoints, through discussions with other students. That stimulated the author's motivation of change. Also the professor expands the communication through the online media. The communications and discussions of other students' writing subjec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author's interests. Furthermore, reading books and articles is one of the causes of the author's chang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ourse taught the author how to approach various meaning of phenomena in social economy field. Also, the author has new understanding of a concept about the power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Using the Internet, the author has experienced extension of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and among students themselves. There are various research methods how to define the subject for study by oneself and how to approach to the subjects of study. The author has accepted that the purpose and point of the study are going to be changed, so there are diversified viewpoints when the research methods are changed. The article shows the students and the author are becoming action researchers of social economy through learn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ourse.

Keyword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narrative, learning, change

* Co-Governance Support Officer, Public-Private Cooperative Governance Division,
Gyeonggi-do, Korea, jeus5090@gmail.com

I. 서론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방법론 교육을 위한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에 대한 자신과 동료 수강생의 경험을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내러티브 연구 중에는 연구자 자신과 동료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즉 자신의 이야기가 포함된다. 자신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일은 내러티브 시작단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탐구를 시작한다 (Clandinin & Connelly, 2007: 143).

3개월의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면서 겪은 경험을 연구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풀어낸 내러티브이다. 연구내용에는 연구자의 학습 경험, 수강생들이 쓴 글과 의견, 교수의 말과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적연구방법론 수강 과정은 연구자 자신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실행연구자(action researcher)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했고 그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해주었으며 변화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수강 과정에서 각 방법론을 접할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기록한 것이다.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연구자의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연구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배우면서 변화를 경험한 연구자인 ‘나’와 수강생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야기를 기록했다. 연구자 자신과 동료의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험 당사자가 경험을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연구자가 ‘철학을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른 연구 초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을 통해 연구자 자신과 동료 수강생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둘째,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을 통한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교육과 관련한 자문화기술지와 내러티브 연구가 국내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교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분석하기도 하고, 학생의 관점에서 학습 경험을 기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운아·신현기(2019), 유일한·이동성(2019), 이동성(2011)은 교사로서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로 풀어내고 있으며, 김대현·박경미(2003), 박세원(2007), 박민정(2007)은 교사의 교육활동,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계순·김명찬(2019)은 중년여성 만학도의 성장 욕구와 자기실현 과정을 자문화기술지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새암(2010)은 사범대학 학생들의 삶에 관해서 내러티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노상우·고현수·권희숙(2010)은 대안학교 학생의 교사만족도를 내러티브 탐구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이처럼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혜숙·유정자·최문정(2010)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학원생이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경험하는 것을 사례연구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서 방법론적 다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적연구방법론이 현장중심연구에 적합하며,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을 하게 함으로써 성찰적 사고를 훈련하게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들 연구는 수강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진행했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정혜숙·유정자·최문정(2010)은 질적연구방법론 관련한 사회복지교육 현황 등을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는 수업 과정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접근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서론, 수업경험, 세상을 보는 창,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수업 경험 이야기 부분이다.

II. 내러티브 연구

1. 내러티브 개념

Creswell(2013: 94)은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에서 다음과 같이 내러티브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내러티브 연구는 많은 형식이 있고, 다양한 분석을 사용하며, 상이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다(Daiute & Lightfoot, 2004). ‘내러티브’는 현상일 수도 있고 혹은 이야기된 이야기를 분석하는 절차로서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Clandinin & Connolly, 2000). 방법으로서 내러티브는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 이야기된 이야기들에 표현된 경험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왔다.

Czarniawska(2004: 17)는 “내러티브는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행동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음성 혹은 문자 텍스트로 이해된다”는 식으로 내러티브를 질적 연구의 구체적인 유형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소수의 사람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자료를 모으며, 개별적인 경험들을 보고하고, 이러한 경험들의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Creswell(2013: 96)은 내러티브 연구의 경계를 정의하는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개인이 살아온 경험, 이야기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연구자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구성한 이야기로부터 나올 수도 있으며 어떤 메시지나 요점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된 이야기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Riessman, 2008). 이야기가 연구자와 참여자의 대화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나온다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가 갖고있는 강력한 특징이다. 둘째, 개인적 경험을 알리고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해명하기도 한다. 셋째, 내러티브 이야기들은 자료수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면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관찰, 문서, 사진, 기타 질적 자료원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서 수집된다. 넷째, 내러티브 이야기들은 참여자들이 연대순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종종 연대순으로 정리된다.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Clandinin & Connolly, 2000). 다섯째, 내러티브 이야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된다.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된 것에 관해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조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특성에 대해 분석할 수도 있고, 혹은 이야기의 대상에 관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 여

셋째, 내러티브 이야기들에는 종종 전환점이 있거나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특정 긴장 혹은 중단이 있다. 일곱째, 내러티브 이야기들은 특정 장소 혹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정 장소 내에서의 이야기는 맥락이 중요하다.

2. 내러티브 연구 절차

김영천(2013: 172)은 내러티브 탐구 절차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Clandinin & Connelly(2000)는 5단계, 김영천(2013)은 6단계를 제시했고, Clandinin & Connelly(2000)의 5단계를 ‘현장으로 들어가기-현장에서 현장텍스트 쓰기’의 3단계로 간략화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2000)의 절차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1) 현장 경험: 수강생활

현장이란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이 일어난 상황, 사건이다. 연구주제와 목적은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통해 연구자인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논문을 작성하려고 보니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 결과를 어떻게 서술할지 막막했다. 몇 편의 논문을 검색하여 읽기 시작했다. 나의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지 등을 분석하여 메모하였다. 수업시간에 교재로 삼았던 책에서 내러티브 연구 부분에 관해서 다시 읽고 내러티브 연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2) 현장에서 현장텍스트 쓰기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자료를 현장텍스트라고 부른다. 이유는 내러티브에서는 자료를 특정상황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텍스트로 보기 때문이다. Clandinin & Connelly(2000)에 따르면 “현장텍스트는 언제나 해석적이며, 언제나 한 개인에 의해서 특정 시점에 구성된 것이다”. 현장텍스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 인터뷰, 일지, 일기, 편지, 대화, 문서, 사진, 기억하기 등 상황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현장텍스트를 쓸 때는 사건, 이야기, 느낌, 생각, 기억 등 무엇이든 쓸 수 있다.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만을 자료로 삼는 것이 아니다. 행동, 사건, 활동 등 경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자료가 된다. 내러티브 연구는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3)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 쓰기

현장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서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작업은 녹음한 것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만드는 일이다. 전사할 때는 비언어적 표현 즉 웃음, 침묵, 머뭇거림, 한숨, 혹은 목소리의 고저장단까지 상세히 기록한다. 정확한 녹취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음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하여 듣다 보면 녹음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의미와 느낌들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으며, 분석에 유용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전사는 반드시 연구자 스스로 직접 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전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내러티브 별로 시간을 반복하여 되돌리며 전개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택한 이유는 경험 과정을 가능한 한 다각도로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동일인이다. 연구자인 현재의 ‘나’와 참여자인 과거의 ‘나’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참여자의 목소리 균형이 중요하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독자이다. 누가 읽을 것인가를 의식하며 작성했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9년 1학기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과 교수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것으로 자료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수업시간 동안 녹음하였고, 이것을 전사하였다. 비언어적인 표현 즉 웃음, 침묵, 머뭇거림, 한숨 혹은 목소리의 높낮음과 장단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녹취록을 만들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녹음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의미와 느낌을 발견하였다. 녹취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수업시간에 작성한 메모, 수강생들이 모여서 나눈 대화나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문자, 온라인에 올려둔 소감문 등이다. 문자메세지나 온라인에 올려놓은 글과 몇 가지 질문지에 대한 동료수강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수업 메모를 남겨 수업시간 별로 상황을 이해하고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참여한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은 주간 일반대학원 학과 석사과정의 필수과목이다. 나는 야간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연구방

법론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일반대학원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즈음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알게 되었다.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적잖은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정책제안을 경기도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하면 일상에서의 대화와 토론으로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 정책으로 나아갈 것인가’, ‘마을정책플랫폼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다.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은 교수가 매 회차 참고할 연구 논문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매주 배우게 될 연구방법론으로 작성된 논문을 적게는 3~4개, 많게는 7개까지 이메일로 보내줬다. 수강생들은 제시한 과제를 읽고 수업 전에 온라인에 과제를 올리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수업시간에 온라인에 수강생들이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수업시간에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을 배웠다. 교수는 늘 학생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글로 쓰고 토론 주제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김영천의 『질적연구방법론 II』, 크레스웰의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책을 중심으로 사례연구, 근거이론,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민속지 연구, 실행 연구 순서로 배워 나갔다. 짧은 시간에 각 각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알고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각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을 활용하여 맥락을 짚어나갔다.

수업은 15회차로 이루어졌다. 1회차는 서로 인사나누기, 2회차 사회과학연구의 철학적 기초_존재론과 인식론, 3회차 사회과학연구의 철학적기초와 질적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3회차 질적연구방법론과 철학, 4회~7회차 사

례연구, 8회차~9회차 근거이론, 10~11회차 내러티브 연구, 12회차 현상학적 연구, 13회차 문화기술지연구, 14회차 실행연구, 15회차 기말과제 발표 순서다.

〈표 1〉 수업내용 및 주제어

회차	수업내용	과제	주제어
1	질적연구와 이론 이해 - 김경만의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 김종영의 '지배받는 지배자'	무슨 주장을 하는가? 어떻게 연구하는가?	글로벌 지식장 상징폭력 지배자
2	연구방법론 철학	토론	연구방법론 철학 할 수 있는 만큼 글 정리해서 올리기
3	사회과학방법론의 철학적 기초 학습 - 크레스웰 - 김영천 - 김경만, 김종영의 책	자신의 생각 쓰기	남의 글 요약하지 않기 남의 글 편집하지 않기 자기 의견 담기
4	사회과학방법론의 철학적 기초학습	자신의 글을 쓰고 제출	"질적연구방법론과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글쓰기
5	사례연구 읽고 토론 - Creswell - 김영천 - Yin - Stake의 질적사례연구 -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쟁점 정리 자기 생각 쓰기	사례연구논문 읽고 토론
6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논문 읽고 토론	토론할 글 쓰기	사례연구방법
7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한 해외연구 -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에 소개된 논문의 연구방법 요약정리 및 자신의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설계	자신의 연구문제 설명	연구문제와 연구설계
8-9	근거이론 학습 교과서 및 근거이론을 적용한 연구논문을 찾아 읽고 정리	자신의 연구문제와 연결	근거이론
10-11	내러티브 방법	내러티브 연구방법 소개	내러티브 방법
12	현상학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 소개	현상학연구방법
13	문화기술지 연구방법	문화기술지 연구방법 소개	문화기술지연구방법
14	실행연구방법	실행연구방법 소개	실행연구방법
15	기말과제 발표	기말과제 발표	자기과제 발표

본 연구는 나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업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의 수업 참여과정에서 남긴 텍스트, 인터뷰,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

였다. 나의 경험은 교수 및 참여 학생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부분이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 2〉 수강생 특성

수강생	구분	질적연구 수업 선택권		논문 계획 수준
A	주간 일반대학원	전공 필수	없음	양적연구 논문 예정
B	야간 특수대학원	전공 선택	있음	논문 계획 없음
C	야간 특수대학원	전공 선택	있음	논문 계획 없음
D	주간 일반대학원	전공 필수	없음	양적연구 논문 예정
E	주간 일반대학원	전공 필수	없음	양적연구 논문 예정
F	야간 특수대학원	전공 선택	있음	질적연구 논문 고민
G	주간 일반대학원	전공 필수	없음	양적연구 논문 예정
H	주간 일반대학원	전공 필수	없음	질적연구 논문 예정
I	야간 특수대학원	전공 선택	있음	논문 계획 없음
J	주간 일반대학원	전공 필수	없음	논문 계획 없음

III. 수업 경험

본 연구자는 수업을 들으며 저녁 시간에 학교에 왔기 때문에 낮에 본 학교 풍경은 몹시도 이색적으로 다가왔다. 수강생도 낮설고 긴장감이 생겼다. 일반대학원 수강생들에게서 느껴지는 낮설음은 수업이 다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가졌다. 전체 구성원이 되는 느낌이었다.

1. 침묵

교수는 첫 시간부터 연구방법론과는 무관할 것 같은 철학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연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문제라는 표현도 연구방법이나 질적 연구도 모두 처음처럼 느껴졌다.

일상에서 접했던 연구 논문과 내가 쓰겠다고 결심하고 바라 본 순간부터 느껴지는 낯설음은 뭔가 달랐다. 교수는 수업 전에 제시해 준 연구 논문이나 책에 대해 읽고 자기 생각으로 요약하여 글로 쓰고 수업시간에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다른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과제를 했는지 온라인에 올려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대학원생들에 비해 일반대학원생들은 교수가 제시한 논문이나 책을 잘 요약하고 정리했다. 교수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글 정리도 잘 되어 있었다. 논문을 꼭 써야 졸업을 하는 전공자들이기 때문인지 논문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다. 기본적인 논문의 구조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화하고 토론하지는

않았다.

“처음 수업 시작하고 좀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E)

“초반 철학 부분 수업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G)

교수의 주문으로 수강생들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소감문을 남기면 교수는 수업 전 소감문을 읽고 대화를 이끌어 줄 사람을 정하였다. 철학에 관한 수업은 3주간 지속되었다. 1주차 서로 소개하고 인사 나눈 후 2주차부터 4주차까지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교수님은 사전 수업 준비를 요구했다.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교수)

누구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선뜻 나서는 수강생은 없었다. 온라인에는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해서 올려놓았는데도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교수는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하거나 편집하지 않기, 자기 생각 쓰기, 자기 의견 담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수업시간 내내 생각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매번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럴 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교수는 자신의 글을 쓰라고 계속 주문했다.

“4주차도 사회과학방법론의 철학적 기초를 학습합니다. 지금까지 읽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올려주세요. “질적연구방법론과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세요.” (교수)

우리는 모두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는 왜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과제는 어떻게 무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E)

“글의 논리성은 앞서 말했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쓰는 ‘나’의 명확한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내가 이해한 것을 남들에게 잘 전달하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아직 나의 관점에 확신이 없는 상태 사이의 격차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H)

온라인에 매주 과제를 올려달라는 주문으로 수강생들은 매주 수업 전에 다른 연구논문과 책을 읽고 소감을 올렸다. 내 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 올려 같이 보는 기술을 익혔다. 글과 생각은 내 것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이런 서비스를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다른 수강생들이나 교수가 볼 수 있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다른 수강생들의 생각이나 이용하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내 생각을 생각해야 하고 보는 것을 의심해야 하는 선문답 같은 질문에 혼란스러워 오랜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생각의 길을 찾고 사고 체계를 세워가는 과정이었다.

“대책 없이 발도 안 닿는 물 속에 던져진 느낌이었어요” (D)

“교수님과 선문답 같은 질문들은 수업내용의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E)

“생각하는, 사고하는 방법, 어떤 것을 보고 내 의견을 정리해서 얘기해야 할 때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H)

2. 혼돈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생각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 6월 13일 수업시간에는 G의 연구 대상인 공정무역이 토론 주제였다

“학교 내 공정무역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교재나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몇몇 공정무역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쿱 자유학기제 공정무역 수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 현장에서 실험연구를 활용하여 교수방법 및 교재 개선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G)

“공정무역의 목적은 뭔가요? 무역 대상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보여지는 사진은 어때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교수)

양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질적 연구방법론과 비교했다.

“질적연구방법론에서는 깨어있는 질문이 필요하

다.” (A)

“질적연구자는 철학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I)

양적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을 배운 학생들은 왜 질적연구방법론이 더 철학을 강조한다고 느끼고 있는 걸까.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수업시간은 생각 끝으로 내몰리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꼈다. 교수는 우리 일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존재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존재하는 거 맞냐고 물었다.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신념을 사용하는 철학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

“여러분 미세먼지는 존재해요? 미세먼지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교수는 이런 선문답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왜 당연하게 여기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때 나는 생각이란 바이러스가 내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기분이었다가 흙탕물 속에 던져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며 정신 질서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그러다가도 가끔 반짝하는 빛을 발견하곤 했다. 정신 질서 체계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철학은 끊임없이 지금 당연하게 보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학문이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수는 정신없이 흐트러져 있던 내 생각의 뿌리와 질서를 찾아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 같았다.

“이번 학기에 들어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시작하면서 ‘철학’이란 단어는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나를 괴롭혔다.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 되는 교수님의 질문에 생각은 막히고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 대답을 하고 나면 늘 부끄러움이 따라왔다.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앉아 있으려니 자괴감만 밀려온다.” (G)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고 철학에 관한 수업을 마쳤다. 수업의 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었다. 나는 수업을 마치고 온라인에 메모 글을 남겼다.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의 근본을 아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개인적으로 칸트가 말하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나 흄이 철학의 의미를 ‘일상을 반성케 하여 이따금 생활 태도를 교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나 다 맞는 말처럼 느껴진다. 사실 지금의 내 삶의 수준으로는 나의 생각의 근원은 뿌리를 알 수 없었다. 많은 철학자들이 존재론적으로 또는 인식론, 가치론적으로 접근하여 세워둔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되었을 텐데 그 뿌리를 알고자 생각을 더듬지 않았다.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들으면서 새삼 나의 이런 저런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여러분들이 철학과를 나왔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교수)

선뜻 ‘네’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반드시

그럴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시대마다 기술적인 요인 등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있었을 테니 말이다. 다양한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저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학문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철학을 공부하는 일은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구를 필요로 하는 욕구, 연구를 요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 창이든 내 눈앞에 있고 무엇을 보느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와 같은 것이다. 존재에 대해 알고 싶고 인식에 대해 알고 싶고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게, 또는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길을 찾아가는 도구가 되어주는 방법론은 그것이 질적이든 양적이든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매우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2주차 부터 시작되었던 3주간의 철학 수업이 끝났다.

3. 다양한 연구방법

교수는 연구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생각하기 훈련을 시켰고 연구 방식의 글쓰기를 익히도록 했다.

“연구방법을 요약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설명해

주세요.” (교수)

다양한 연구방법을 배우는 것은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연구대상을 정할 때 정책 제안에 참여한 개인으로 할지, 주민이라는 집단에 관한 것인지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라는 조직에 관한 것인지부터 혼돈이었다. 또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정책제안 프로세스 개선이었는지, 주민 집단의 의미 있는 행동을 분석하고 싶었던 건지, 행동을 한 주민 집단 내 개인의 태도인 것인지, 정책제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 건지, 행정 공무원 개인의 변화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인지,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추진하는 정책한마당 행사를 평가하고 성과를 개선하고 싶은 것인지 뒤죽박죽되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양한 연구방법론으로 접근해서 정리해 보세요’라는 교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더 뒤죽박죽이었다. 다른 연구방법론으로 접근할 때마다 연구목적이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막연하게 사람은 다 다르니까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다르게 생각하겠지 하던 것들이 눈앞에서 또렷하게 증명되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정답이 없어요’라고 평소에 말해 왔는데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었다. 다른 연구방법론으로 사건을 바라보니 다른 게 보였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본 절은 수업 순서에 관계 없이 내 생각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방법론의 순서를 정하고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1) 사례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성남시, 수원시, 여주시, 구리시,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에서 살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에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집담회를 열고 그들의 제안을 경기도 차원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책 장터에 참여한 방식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이미 접해왔는데 사례연구는 일상에서 접해왔던 그런 사례 진술이 아니었다. 연구대상은 2018년 경기마을공동체한마당 정책장터를 준비하고 실행했던 사례다.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장터를 열기 위해 지역에서 집담회를 열고 마을상상댄스를 개발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을상상댄스를 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며 즐거워하는 마을 활동 현장에 있었다. 이들은 마을상상버스를 타고 경기마을상상 천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책장터를 열었고 즐거웠다. 하루 행사를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담회를 열고 마을상상댄스를 쳤다.

마을상상댄스는 세월호 추모곡에 맞추어 율동을 개발한 용인 동천마을네트워크 커뮤니티댄스단에서 개발해주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노래에 맞추어 추는 댄스였다. 정책장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상천인위원회 실행위원들이 보급하여 각 지역을 상징할 만한 곳에서 함께 춤을 추고 인터넷에 올렸다. 오산은 고인돌지역에서, 여주는 신록사 앞에서, 수원은 수원화성 장안문에서 마을상상댄스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쳤다. 모두 즐거워 보였다.

10월 6일 행사 당일 정책장터로 오는 마을

상상버스가 준비되었다. 판문점이 있는 파주에서부터 서해가 있는 평택에 이르기까지 거리상으로 먼 곳에 살고 있는 경기도의 주민들이 경기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행사는 경기도, 경기도지원센터,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쳤다. 다음 해에 행사를 마친 후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제안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워크숍을 가졌고 ‘마을정책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었다.

수강생 중에 사례연구를 하기에는 활동 사례가 너무 짧다는 조언을 주었다. 나는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무슨 일(정책제안사업)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 결정적 사건 : 정책장터(2018년 10월 6일)
 - 이 일에 반응에 관련한 사람은 누구인가?
 - 그 정책장터 이후 7개월 동안 나타난 반응의 주제는 무엇인가?
 - 이런 반응을 이해하도록 돕는 이론적 구성체는 무엇인가?
- (2019.5.25. 온라인 메모)

2) 내러티브

“연구자는 정책제안서를 받아든 행정 공무원이 제안된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된 행정부서와 협력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책을 제안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연구도 연구방법이라는 것이 신기했다. 연구의 초점이 개인에게로 맞춰졌다. 주민에게서 행정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행

정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갖자 행정공무원에게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로 보였다. 행정공무원이 제안을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피드백을 위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그의 태도는 활기가 있었다. 10월 6일에 제안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은 12월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글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는 글이었다. 이를 받아 든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미 있는 정책인데도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면 왜 이미 있는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또한 전혀 불가능하다는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러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제안자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정책장터를 경험한 행정공무원은 피드백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이 정책제안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정책제안사업에 참여한 행정 공무원의 정체성 내러티브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경기도 행정 공무원의 인생 경험은 무엇인가? 정책제안에 관한 경험에서 보여준 그의 반응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지난해와는 다른 주민들의 행동을 존중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 반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정책장터에 관한 그의 경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2019.5.25. 온라인 메모)

3) 근거이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 장터에 참여하는 실행위원들이 리더십 정체성의 창출을 경험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8·9주차에 걸쳐 근거이론 수업이 이루어졌다. 교수는 자신의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교과서 학습하고 정리, 근거이론 관련 연구 논문을 찾아 읽고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내 연구문제와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의 주제로 인정되어 민간의 파트너 단체로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가 정책장터 주관을 하게 되는 과정, 정책장터에서 정책 의제를 알리기 위해 자율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역집담회를 여는 과정에서 보여 준 실행위원들의 행동은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넘어서는 경기도의 마을 리더들의 등장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책제안 과정에서 어떻게 리더들이 정체성 창출을 경험하는지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 현상학 연구방법

현상학 연구를 위해서 나는 정책장터에 참여한 사람들의 즐거움, 행정공무원이 경험한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었다. 정책장터를 마치고 워크숍, 마을정책컨퍼런스 등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면접하거나 관찰 할 수 있다. 진정한 마을공동체 구성원 간 또는 지역에서의 연대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질문은 당신이 연구하려 관심을 둔 현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였다.

정책제안에 참여한 15명의 정책제안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면접, 분석, 연대의 의미를 설명, 연대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인용한다. 의미 있는 진술을 광범위한 주제로 묶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한다.

연구 질문은 인간의 경험이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통할 것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주민들이 어떤 연대를 경험했는가’,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내러티브로 기술하고 이들 경험의 본질을 전달하도록 더 깊게 기술할 것이다.”

5) 실행연구

실행연구라는 것이 연구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연구참여자와 공감적인 바탕에서 반성적, 환원적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의가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다.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자신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지 실행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말과제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대학원 참여수업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생 내러티브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제목을 정했다. 급하게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카톡방을 통해 글을 남겼다.

“선생님! 질방 숙제를 앞두고 저는 과제를 정했어요. 수강생들의 개선을 위한 한마디씩을 청할까

합니다. 원하신다면 익명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대학원 참여수업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생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2019.06.14. 카카오톡 단독방 글)

수강생 전원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주었다.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고 온라인에 올라온 수강생들의 글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6) 문화기술지

배워야 할 연구방법론은 ‘문화기술지 연구’였는데 수업에 참석하지 못해 연구방법론을 습득하지 못했다.

“접근에 적용할 질문: 문화기술지를 위해서, 당신이 연구하려고 하는 문화집단이나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화공유집단이 행동과 언어 패턴 그리고 신념이 만들어질 만큼 충분히 오래되었는가?”

내가 만약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선택한다면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간’의 의미에 대해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싶다.

지금까지 사례연구,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연구 등을 배우면서 질적연구방법론에 흥미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등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의식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사례 연구를 배울 때, 그 고민은 이 사례연구로 한번 접근해봐야지 하고, 내러티브 연구를 배울 때는 이 문제의식은 이 연구방법이 좋겠다 했

다. 현상학 연구를 배울 때는 현상학에 관한 이론을 잘 알지 못하여도 고민하고 있던 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본질에 접근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교수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수강생들을 보며 답답해하는 듯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질적연구가 이런 것이구나를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지만 스스로 기대를 낮추고 나니 압박감은 줄었다. ‘연구라는 말을 배우는 유치원생’ 같은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

4. 상호작용

수업 회차가 거듭되면서 온라인에 올려 준 글과 수업시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서로 보고 배웠다.

“마지막 날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전반적인 평가,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다는거예요.” (H)

소감문은 온라인에 수업 전에 올렸고 교수는 수강생들의 수업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수강생의 입장에서 다른 수강생들이 과제를 얼마나,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과제 방향을 잡는데 힌트를 얻었다. 온라인 활용은 교수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수강생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으며 수강생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유에 대한 의식을 배우고 익혔다. 개인들의 온라인 활용 정도와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연구보고서를 쓰기 위해 온라인에 올려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개

인들의 생각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좋았고 글이 쌓여 전체적인 변화를 보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각자 이용하는 태도도 달라 흥미로웠다. 수업시간은 대화와 토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공유된 글은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시간에 존재하는 모두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었다.

상호작용은 교수가 수강생들이 수업 전에 작성한 온라인의 내용을 읽고 온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더 강렬해졌다. 수업시간 녹취기록을 분석하면서 교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한숨’, ‘웃음’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강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업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수업을 통해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수업을 마친 후 녹취기록을 들을 때의 경험이다. 왜 수업시간에는 경험하지 못했을까.

“직접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걸 듣는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던 상황에서 교수님의 수업방식 자체가 제가 생각지 못했던 성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H)

논문 쓸 계획은 없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하고자 수강한 특수대학원 수강생들은 수업시간에 활기가 있었고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해 주었다.

일반대학원생 중 질적연구방법론으로 논문을 쓸 계획을 가진 H는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었다. 대다수 수강생들도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교수의 수

업 목표와 수강하는 학생들의 목표에서 오는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기말과제 제출은 낮은 수준에서라도 동기부여가 되었다. 뭐라도 직접 써 보는 것이 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솔직히 질방 수업에 대해서 이루고자 했던거 별로 없었는데, 질방으로 논문 안 쓸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이 없어졌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 방법으로 논문 쓰면 재미있겠구나~ 이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이러한 질적 방법으로 하면 맞겠구나 등등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J)

기말과제 제출이라는 목표가 설정되고 태도와 정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수강생들, 교수가 한 말과 글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스스로 달라졌다.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고 의심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람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좀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울 수 있었다. 교수와 수강생과의 관계는 다분히 수직적이지만 수강생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졌고 수평적으로 관계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구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조언을 얻었다. 수업 준비, 수업시간 진행 과정에서 공유와 철학, 연구,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수업시간 대화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에 관한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나도 연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교수와 수강생들과의 유대감이 생기면서 학교생활이 달라졌다. 이런 감정은 나의 경험이지만 수강 생활은 실제 학교생활

과 일상의 생활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교수님이 읽으라고 했던 책(질적연구방법론,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왜 케이스 스터디인가 등)을 읽을 기회를 얻어서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책(=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겠지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 정신을 번쩍 들게하는 교수님의 ‘다르게 생각하기’ 또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동기분들은 교수님이 내준 숙제를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그 태도와 내용, 그리고 수업 때 나는 말씀들로부터 또 많이 배웠습니다. 참고합니다.” (I)

내가 참여하는 전공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퇴사한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2명이 있었지만 편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다. 나는 일상을 함께 나눌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학교에 와서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밥을 같이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수다를 떨만한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다.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은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함께 수강한 C, F, I와 예전엔 전혀 알지 못했던 친밀감이 생겼다.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은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었다. 수업 마치고 나면 수강생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수업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 함께 한 수강생과 친해지고 그들도 나처럼 아직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은 충분하지 않지만 무엇이랄도 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활기로 다가왔다. 내가 스스로 바꾸어 그들과 관계하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려운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왔다고 생각한다.

IV. 세상을 보는 창

1. 발견

나는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었다. 수업시간에 교수가 질문할 때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답을 찾느라 진땀을 흘렸다.

“허유적거리느라 힘들었어요.” (C)

“질방 시간은 이상하게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간이다. 다른 시간과는 달리 준비해간 과제에 당당할 수도 없고, 늘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교수님식 언어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인지... 아마도 나의 학문적 부족함 탓이겠지만” (G)

“질방에 대한 지식이 전무후무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클래스. 너무 막연하고 넓은 수업 형식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E)

이상하게 수강생들이 하는 말에서 위안을 얻곤 했다. 온라인 메모를 잘 해내는 수강생들도 저렇게 질적연구방법론을 어렵다고 하는 것도 놀라웠다.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참여하는 날에는 모두에게 미안함이 생기고 마음속에 문득 수강 신청하지 말고 청강하러던 교수의 메일이 떠올랐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한심한가. 매일 10분이라도 주신 논문은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레스웰의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을 읽었다. 나만의 속도를 찾아냈다. 책 표지와 책 중간 중간 등장하는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철

학에 대한 교수의 혼란스런 질문에 대한 답, 세상을 보는 창, 철학이란 바로 이 이미지와 같다는 발견이었다.

“나는 질적 연구를 미세한 실과 많은 색깔, 다양한 질감, 다양한 재료가 혼합되어 구성된 복잡한 천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천은 쉽게 또는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천을 짜는 베틀처럼, 일반적인 가정들과 해석적들이 질적 연구를 함께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틀을 기술하기 위해서, 질적연구자들은 용어들 -- 구성주의자, 해석주의자,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스트 등 -- 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정들과 틀 내에서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와 같은 질적 탐구에 입문한다. 이 분야에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수많은 다양한 개인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 자신의 베틀로 질적연구라는 천을 짜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제쳐두고, 창조적인 예술가들은 천은 짜는 공통의 과업을 갖는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형태의 질적 연구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으며, 상이한 특징들은 질적 프로젝트에 따라 상이한 강조점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특징들이 모든 질적 프로젝트에 전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드러난다.” (김영천, 2013: 63)

우리는 각자 자신의 베틀로 질적연구라는 천을 짜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는 편안함과 고요함을 찾았다. 수업의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닌데도 나는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내 안의 평안함과 수업에 대한 달라진 나의 태도에 호기심조차 일었다. 변화가 느껴졌다. 수업시간을 통해 언어야 할 이론이나 지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

평소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에 어려움을 느꼈다. 연구에 필요한 개념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다르게 쓰여졌다.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말을 배우는 유치원생 같았다.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을 통해 연구를 필요로 하는 욕구, 연구를 요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드는 과정을 ‘연구문제’로 재정의하고 난 후에는 연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연구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교수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연구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저에게겐 깨달음이었습니다.” (I)

연구가 대학에서, 연구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며 당신들이 연구자가 되어주었으면 한다는 교수의 지속적인 내러티브에 힘입어 나 스스로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현장에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수강생들끼리 회식을 했다. 회식 이후에는 강의실에서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야간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포기했어’라는 말을 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하는 표정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다.

수강생들 중에 몇몇은 힘들었다고 내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자신은 양방으로 논문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방 수업을 받

는 것이 무척 괴롭다고 했다. 그러나 수업을 마친 이 순간 나는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해야 할 것도 많아졌고 하고 싶은 것도 생겼다. 언제 외롭고 질적연구방법론이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오래된 기분이었다.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불안해 하던 나의 모습도 사라졌다. 나는 충만감을 느끼고 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밖에 있어서 그것을 획득한 것인지 내 안에서 저절로 서서히 생성되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내 안에서의 힘이 느껴졌다.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해 조금씩 더 시간을 내어 조금씩 알아갈 것을 결심하고 있다. 나는 논리가 부족하고 지식의 깊이도 없었지만 강렬한 충만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해나갈 것이다.

2. 평가

연구자와 같은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배치된 일반대학원생들에 비해 논문을 읽고 요약 정리한 분량이 적었지만 수업 시간 내내 활기찼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수업시간에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해주는 동료생들 덕분에 수업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울 수 있었던 것 같다.” (E)

“지식 소비자를 넘어 지식 생산자가 되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참 죄송하지만, 저 개인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I)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변화가 참 부듯했어요(웃음).” (I)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C)

“질적방법론으로 연구한 논문을 리딩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뽑아내고 이론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상당부분 이론 것 같다.” (F)

자신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자유롭게 수업시간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논문을 쓰겠다는 목표는 없어 보였다.

“교수 : 궁금해. 궁금해. 도대체 왜. 왜. 왜(한숨). 방법론 수업을 듣는거야. 난 여러분들이 논문도 안 쓸거라고 하면서 왜 질적연구를 듣는 거야 아이구(한숨).”

“C :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었습니다.”

“교수 : 다른 수업도 있잖아요.”

“I : 이번 학기 수업 중에 이 수업이 제일 남는게 많아요(웃음).”

“B : 저는 아직 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면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도를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6.13. 수업 녹취)

수강하는 일반대학원 전공자들은 양적연구 방법론으로 이미 논문 계획이 세워진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참여 태도는 몹시 무거웠다. 하지만 수업 과정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질방 시간은 이상하게 자신감 내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간이다. 수업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는

딱히 없었다. 굳이 찾자면 ‘수업을 무사히 마치는 것 정도다.’ (G)

“양방으로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은 이상 질방 수업에 많은 힘을 쏟는 것이 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초기엔 교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수업 준비가 몹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E)

“수강생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조금 더 친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도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D)

“나는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논문 쓰고 연구소에 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연구 논문이나 책을 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방법 이론을 이해하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한다고 하는 일은 아주 생경한 일일 수는 있지만 직업으로 특수한 사람이 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논문은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저자인 나, 리뷰어 둘, 한 3명만 읽을 거예요. 이런 논문 써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성과평가에만 도움이 될 뿐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는 그 어떤 결과보고서가 될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연구방법인 질방과 양방을 잘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교수)

(2019.6.13. 수업 녹취)

“마지막 날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전반적인 평가들,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다는거예요.” (H)

마지막 수업에서의 교수는 수강생들이 질

적연구방법론을 선택하여 연구논문을 쓰도록 권하는 사람 같았다. 수강생 모두는 기말과제로 무엇이든지 글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강제적인 상황이지만 그 또한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것과는 달리 글을 쓰는 동안 많은 것이 변화했다.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매 순간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수업에 참여하면서 달라진 점은 전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의 흐름대로 내 버려두었던 것을 멈춰 세우고 지금의 흐름에 대해 의심해 볼 줄 아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3. 변화

연구에 필요한 글쓰기에 자신이 없고 이론적 감수성도 낮아 연구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나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삶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점점 지적으로 뭔가를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고 그 일은 철학을 하는 것이나 일상에서의 연구자가 되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훈련이 필요해 보였다. 생각을 체계화하고 구분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에 대해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은 길을 알려주었다.

“논문이 왜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어렵듯이 알게 되었구요 ... ‘연구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I)

구체적으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다. 6개의 연구방법을 배울 때마다 여러 차례 당시의 상황인식과는 다른 인식이 발생했다. 연구방법의 선택에 따라 연구목적과 초점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자 그동안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책임을 나누지 못하는 민간 주체에 대한 접근이 달라졌다,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접근 또한 좀 더 깊이 다가갔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인식이 발생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수용성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2018년 10월 6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경기마을공동체한마당’ 정책장터 진행 이후 공무원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미 정책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는 의미 있는 모니터링 행동’으로 여기는 주민들과는 다르게 정책제안은 쓸모있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정책제안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공무원의 행동을 수용하는 자세로 바뀌었다.

“특히 생각하는, 사고하는 방법, 어떤 것을 보고 내 의견을 정리해서 얘기해야 할 때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수업 전에 설정한 개인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성과가 큰 수업이었다고 생각해 요!” (H)

“현장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약간의 실마리를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C)

일상이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질문으로 시작된 수강생활은 수강생활 내내 영향을 미쳤다. 매 회차 수업 시간에만 일어난 느낌이나 생각들은 지속적으로 작용했다. 수업이 종료된 상황에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사소하다고 여겨졌던 생활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이 수업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에 대한 자세도 달라졌다. 매일 활용하던 스마트폰 메모장을 더 자주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 탐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오르고 매 순간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교수의 조언이나 리드가 없어도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제는 ‘실행연구’ 하면 좋겠다고 떠올리게 되었다. 같은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보내준 질문지 답을 통해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료할수록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질적연구방법론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연구방법론 수강과정에서 각 방법론을 접할 때마다 수강생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탐색하여 기록하고 질적연구방법론 수업과정이 대학원의 목표인 연구자 양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자 했다.

연구결과, ‘질적연구방법론’ 수강을 통해 교수와 수강생, 수강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강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연구 논문을 쓰겠다는 동기를 얻었으며, 연구에 대한 태도 전환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고, 문제를 정의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와 같은 변화는 관점의 전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촉발되었다.

‘질적연구방법론’은 사람을 중심에 둔다. 때문에 철학에 대해 강조한다.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인간의 삶에 대해 보다 전체적이고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질적연구는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드러내는 연구이고,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적 특성을 발견하려는 연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질적 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질적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보여준 것은 연구자와 동료 학생 자신의 내러티브이다. 연구자는 자신이 대학원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면서 얻게 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행연구자가 되어감을 설명했다.

참 고 문 헌

- 강운아, 신현기 (2019), 초등학교 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통합교육연구**, 14, 1-28.
- 김경만 (2015),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문학동네.
- 김계순, 김명찬 (2019), 중년여성 만학도의 성장 욕구와 자기실현 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5, 109-137.
- 김대현, 박경미 (2003),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정연구**, 21(2), 23-49.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노상우, 고현수, 권희숙 (2010), 대안학교 학생의 교사만족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문제연구**, 15(1), 197-226.
- 박민정 (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학교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1), 69-93.
- 박세원 (2007), 교사의 교육 활동에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0(1), 37-62.
- 유일한, 이동성 (2019), 한 소규모 초등학교 초임 교사의 교직사회화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5, 37-65.
- 이동성 (2011), 한 교사교육자의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4(3), 31-67.
- 이새암 (2010), 사범대학 학생들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3(1), 95-129.
- 정혜숙, 유정자, 최문정 (2010),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의 질적연구방법론 수업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2, 97-12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7), Teacher education: A question of teacher knowledge, In *Shaping the Future* (pp. 89-105), Brill Sense.

- Creswell, J. W. (2013), Quant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정선욱·김진숙 (공역), 서울: 학지사.
- Czarniawska, B. (2004), Narratives in social science research, Sage.
- Daiute, C., & Lightfoot, C. (2004), Theory and craft in narrative inquiry in Narrative analysis: Studying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in society, Sage, pp. 7-18.
-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Sage.

논문접수일 : 2020년 1월 28일

심사완료일 : 2020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2월 24일

